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 요약문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 요약문 -

이 연구는 2020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요약문

요 약 문

I. 서론

- 본 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비교 분석한다. 더불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몇몇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가 지역의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비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SNS나 1인 미디어가 부정확한 정보를 유통하기 쉽고 유권자들이 이 부정확한 정보에 설득당하기도 쉽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가 직접적인 정보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 더구나 대통령선거 등에 비해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에게는 토론회가 제공하는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이 직접 비교해 볼 유일한 수단이 후보자토론회인 만큼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정교히 디자인될 필요가 있으며,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권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 및 공정성 등 현실적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거 행태에 미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위해 전국에서 12개 지역구를 선택하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 본 연구는 또한 이번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비교해 보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취합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진행방식이 후보자토론회에 도입되어 활용되었다. 2004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방식, 상호토론방식, 자유토론방식 등 10개의 다른 토론진행 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 이후에도 사회자와 후보자 간 단순 질의응답 형식부터 후보자간 상호토론 및 자유토론 형식까지 한국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그 형식과 진행방식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해 왔다. 이 시도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유용성, 역동성 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정성을 의식한 기계적인 진행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토론과 자질 검증이 부족하고 흥미도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비해 관심과 정보의 양이 적은 지역구 국회의원선

거의 경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흥미와 유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토론이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 다양한 토론 형식과 진행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자의 역할과 토론 개입 정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전개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대체로 단순진행을 담당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해 왔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이 도입되었을 때에도 사회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여 만족스러운 토론회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에 비해 사회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는 여전히 단순진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자의 진행 미숙은 토론 참가자들의 토론 미숙과 더불어 토론회를 열기가 없이 느슨하게 만들고 토론회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 기존 연구들은 또한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충분한 발언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토론회 횟수의 증대가 논의된다. 그러나 253개 지역 모두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초청 뿐 아니라 초청 외 토론회와 합동연설 및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도 개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예외 없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토론회의 방영시간과 방송채널 문제이다. 수도권인 경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주로 황금시간대(오후 7~11시)에 방영하고 있지만 공중파 방송이 아닌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중파 방송사들에서 방영하고 있지만,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는 대선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토론회 시청 기회가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토론

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해가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8대 총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조사에서 시청자들은 지지후보 결정 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친 정보원으로서 후보자토론회를 TV보도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후보자토론회 전후를 비교했을 때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신뢰성, 토론회의 정보제공성, 가치성 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연구한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흥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평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토론회를 더욱 흥미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 도입 초기에 공정성은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최근에는 후보자토론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는 최근에는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토론을 너무 규격화하고 형식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자는 단순진행에 머무는 기계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토론의 역동성을 구현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3.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

-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정치 관여도 및 정치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왔다.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역시 시청자의 후보자 및 정당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토론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인물됨과 이미지 형성 및 정

당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지지 후보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 이미지를, 비호감 후보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 강화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2016년 총선 유권자 대상 조사에 의하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대해 비시청자와 유사하게 평가하거나 더 나쁘게 평가한 반면 상대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시청 후에 더 우호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후보자토론회가 상대정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장을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거관여도와 투표 참여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후보자토론회를 많이 시청할수록 토론회 이후에 주위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며, 투표참여 의사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비시청자 간에 투표의 향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태도 및 투표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토론회가 설득효과보다는 강화효과를 더 크게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선택을 변화시키는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는 후보자토론회가 시청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화 및 선택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약간 낮아지고 상대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후보자토론회의 설득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내용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개최된 253개 초청 후보자토론회 중 12개 토론회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2개 선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을 위한 유권자 설문조사 대상 선거구

권역	지역	선거구
수도권	서울	종로구, 강남구갑, 동작구을, 동대문구을, 관악구을
	경기	안양 동안구을, 고양시정
	인천	연수구을
영남	부산	북구강서구갑
	대구	수성구갑
호남·충청	대전	중구
	광주	북구갑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내용과 범위

설문조사를 이용한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시간, 횟수, 진행방식, 방송시간, 사회자 역할, 유권자 참여 방식
현실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흥미성, 유용성, 효과성, 공정성
효과적 측면	심리·인지효과: 선거관심, 공약인지도, 정치적 효능감, 정책인지 및 정책정보 습득, 후보자인지 태도효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및 비호감도 참여효과: 후보자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대화참여, 투표참여 선택효과: 후보자선택
기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 제도적 측면, 현실적 측면, 효과적 측면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비교 분석	
전문가 인터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시간, 횟수, 진행방식, 방송시간, 사회자의 역할, 유권자의 참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위상에 대해 논의한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

자들의 인지도, 관심도, 흥미도 및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 효과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와 공약인지도, 후보자인지도,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정책 정보 습득 정도, 정치적 효능감 등의 심리적·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후보자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대화참여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후보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인지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정도를 분석한다.
- 이렇게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에서의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기존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분석의 신뢰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정치학 전공자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내용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의 범위인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보자토론회의 평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조사 방법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별된 12개 선거구의 만18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후보자토론회 개최 전(사전)과 개최 후(사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12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자 1,90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81.3%인 1,547명이 사후조사에 응답하였다. 사후조사 응답자 중 해당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시청자가 1,077명이며 미시청자는 470명이다.
- 사전조사의 표본은 엠브레인퍼블릭 패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효능감, 이슈 및 정책인지도 등이 높고 성별 구성, 교육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응답자 특성

○ 본 연구의 대상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응답자 특성

		전체 (1,547명)		시청자(1,077명)		미시청자(470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성	699	45.2	521	48.4	178	37.9
	여성	848	54.8	556	51.6	292	62.1
연령별	18-29세	378	24.4	269	25.0	109	23.2
	30대	493	31.9	349	32.4	144	30.6
	40대	381	24.6	254	23.6	127	27.0
	50대	214	13.8	145	13.5	69	14.7
	60대 이상	81	5.2	60	5.6	21	4.5
후보자토론회 시청 분량	전체			245	22.8		
	3분의 2 정도			334	31.0		
	반정도			266	24.7		
	3분의 1 정도			120	11.1		
	잠시			112	10.4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7	0.5	6	0.6	1	0.2
	고교 재학 중	7	0.5	5	0.5	2	0.4
	고교 졸업	162	10.5	99	9.2	63	13.4
	대학 재학 중	119	7.7	85	7.9	34	7.2
	대학교 졸업	1,086	70.2	764	71.0	322	68.5
	대학원 이상	160	10.3	116	10.8	44	9.4
	기타	6	0.4	2	0.2	4	0.9
직업별	농/임/어업	0	0	0	0	0	0
	자영업	104	6.7	77	7.2	27	5.7
	판매/서비스	80	5.2	60	5.6	20	4.3
	기능/숙련직	19	1.2	14	1.3	5	1.1

		전체 (1,547명)		시청자(1,077명)		미시청자(470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직업별	생산/노무직	36	2.3	22	2.0	14	3.0
	사무직	659	42.6	458	42.5	21	42.8
	경영/관리직	77	5.0	62	5.8	15	3.2
	전문/자유직	138	8.9	98	9.1	40	8.5
	가정주부	152	9.8	100	9.3	52	11.1
	학생	137	8.9	98	9.1	39	8.3
	무직	80	5.2	47	4.4	33	7.0
	기타	63	4.1	40	3.7	23	4.9
	모름	2	0.1	1	0.1	1	0.2
가구 월평균 소득	~150만원	65	4.2	39	3.6	26	5.5
	~350만원	372	24.1	240	22.3	132	28.1
	~550만원	497	32.4	353	32.8	144	30.6
	~800만원	365	23.6	271	25.1	94	20.0
	~1000만원	141	9.1	98	9.1	43	9.2
	1000만원 이상	107	6.9	76	7.1	31	6.6
고용직 중 현재 고용 상태	정규직	860	85.2	617	86.4	243	82.4
	비정규직	149	14.8	97	13.6	52	17.6
이념 성향별	진보(0~4)	608	39.3	417	38.7	191	40.6
	중도(5)	494	31.9	324	30.1	170	36.2
	보수(6~10)	428	27.7	212	19.7	109	23.2
	모름	17	1.1	12	1.1	5	1.1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728	47.1	515	47.8	213	45.3
	미래통합당	225	14.5	153	14.2	72	15.3
	민생당	6	0.4	5	0.5	1	0.2
	미래한국당	14	0.9	11	1.0	3	0.6
	더불어시민당	33	2.1	18	1.7	15	3.2
	정의당	126	8.1	80	7.4	46	9.8
	우리공화당	2	0.1	1	0.1	1	0.2
	국민의당	107	6.9	69	6.4	38	8.1
	민중당	7	0.5	7	0.7	0	0
	열린민주당	19	1.2	11	1.0	8	1.7
	친박신당	0	0	0	0	0	0
	한국경제당	2	0.1	2	0.2	0	0
	기타 정당	26	1.7	20	1.9	6	1.3
	없음	181	11.7	137	12.7	44	9.4
잘 모름	71	4.6	48	4.5	23	4.9	

4.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와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두 문항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 더불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차이를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공약에 대한 인지, 정치효능감, 정당에 대한 호감도, 투표 참여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청자와 미시청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선거관심도, 후보자 호감도, 선거참여, 후보자선택, 후보자 토론 평가 등 주요 변인들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두 개인 경우는 프로빗(probit)분석과 로짓(logit)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 종속변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순서형로짓(ordered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편,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와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치과정(선거)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현재 중앙 또는 광역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거나 과거에 위원을 경험한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험이 있는 연구자도 포함되었다.

I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후보자토론회는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와 지역구 후보자토론회가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토론회는 두 차례의 초청 토론회와 한 차례의 초청 외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초청 토론회는 1, 2차 모두 오

전 10시부터 진행되었고 초청 외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어 유권자들의 접근성은 낮은 편이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토론회 등은 총 461건이 개최되었다. 총 368건의 후보자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253개 지역구 중 248개 지역구에서 1회씩 개최되었고 초청 외 후보자연설회가 208건 개최되었다. 5개 지역에서는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의 합동 토론회로 진행되었고, 초청 외 토론회의 경우에는 토론 대신에 주로 연설로 진행되었다.
-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는 모두 지역 케이블을 통해 방영되었고, 그 외 지역의 후보자토론회는 지역의 KBS, MBC, 또는 지역 민영방송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 전체 초청 후보자토론회의 약 55%가 시청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방영되었다. 특히, 선거구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는 대부분의 토론회가 17시 이후 23시 전에 방영되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시청자들의 접근성과 노출도가 낮은 지역 케이블에서 방영하여 문제로 지적된다.
- 반면,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경우는 모두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하였지만 17시~23시 사이에 방송을 시작한 경우는 총 145회 중 25%인 36회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방송 법상 주시청 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방영을 시작한 경우는 5회 밖에 없었다.
-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도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253개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후보자의 시작발언으로 시작하여 사회자 공통질문/답변 (또는 후보자 보충질문/답변), 사회자의 개별질문/답변,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또는 자유토론, 그리고 마무리발언으로 끝나는 형식을 따랐다.
- 여러 가지 토론 진행 방식 중 주도권토론은 토론회의 역동성과 흥미를 위해, 정책검증토론은 공약의 검증을 위해 많은 선거구에서 활용하였다. 서울의 경우 49개 선거구 중 30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주도권토론 방식을 채택하였고, 33개 선거구에서 정책검증토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총량제 기반 자유토론은 서울 3개 선거구 포함 전국 20개 선거구에서만 채택하였다.
-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경우, 언론인, 방송인, 교수에 국한되어 기존의

후보자토론회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조사 대상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12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은 <표 4>와 같다. 서울의 경우 5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토론회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으나 지역케이블을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의 7개 후보자토론회는 오전 시간에 방영된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광주 북구갑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에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었다.

<표 4> 12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지역	선거구명	개최일시	방송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후보자	사회자 (현직)
서울	종로구	4. 6.(월) 11:00	4. 7.(화) 20:00~21:10 (70분)	티브로드 강서제작센터	티브로드 서울방송, 딜라이브 중앙케이블TV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황교안(미래통합당)	오미영 (교수)
	강남구 갑	4. 5.(일) 16:00	4. 6.(월) 20:00~21:14 (74분)	아리랑TV 스튜디오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김성곤(더불어민주당) , 태구민(미래통합당), 정동희(민생당)	이정훈 (방송인)
	동작구 을	4. 8.(수) 14:00	4. 9.(목) 21:00~22:17 (77분)	현대HCN 스튜디오	현대HCN 동작방송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나경원(미래통합당), 이호영(정의당)	김민기 (교수)
	동대문구 을	4. 6.(월) 14:00	4. 9.(목) 20:00~21:10 (70분)	CMB스튜디오	CMB동대문방송, 티브로드서울 방송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이해훈(미래통합당), 민병두(무소속)	김상운
	관악구 을	4. 7.(화) 14:00	4. 9.(목) 21:00~22:27 (87분)	현대HCN 스튜디오	현대HCN 관악방송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오신환(미래통합당), 한인수(민생당)	김민기 (교수)
부산	북구 강서구 갑	4. 8.(수) 10:00	4. 8.(수) 10:00~10:57 (57분)	KBS부산 TV스튜디오	KBS부산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민식(미래통합당)	이경찬 (교수)
대구	수성구 갑	4. 6.(월) 17:30	4. 6.(월) 17:30~18:22 (52분)	대구문화방송	대구MBC	김부겸(더불어민주당) , 주호영(미래통합당)	조재한 (대구MBC 기자)
대전	중구	4. 7.(화) 14:30	4. 7.(화) 22:05~22:57 (52분)	대전MBC	대전MBC	황운하(더불어민주당) , 이은권(미래통합당)	마정미 (교수)

지역	선거구명	개최일시	방송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후보자	사회자 (현직)
인천	연수구 을	4. 8.(수) 14:00	4. 9.(목) 21:00~22:27 (87분)	남인천방송 스튜디오	남인천방송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민경욱(미래통합당), 이정미(정의당)	장우식 (방송인)
광주	북구갑	4. 7.(화) 10:00	4. 7.(화) 10:00~11:40 (100분)	KBS광주 1층 공개홀	KBS 광주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범기철(미래통합당), 이승남(정의당), 김경진(무소속)	지창환 (KBS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4. 8.(수) 14:00	4. 8.(수) 22:00~23:22 (82분)	티브로드 ABC방송 스튜디오	티브로드 ABC방송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심재철(미래통합당), 문태환(민생당), 추혜선(정의당)	정종기
	고양시 정	4. 8.(수) 15:00	4. 9.(목) 22:00~23:14 (74분)	딜라이브 경기케이블 TV스튜디오	딜라이브 경기케이블TV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아(미래통합당)	이윤영

- 12개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는 모두 다양한 진행방식을 활용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충질문, 정책검증토론, 주도권토론 등을 통해 단순 질문/단순 답변 형식을 벗어나 토론회의 역동성과 후보 검증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
- 특히 12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가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호 검증하는 방식인 정책검증토론을 채택함으로써 토론 의제를 정책에 한정하고 토론의 질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7개 선거구에서 활용된 주도권토론은 토론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V.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1. 제도적 측면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 98%가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

방송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후보자토론회 횟수와 관련해서는 사전평가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7%인 반면, 사후평가에서는 약 59%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번의 토론회가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유권자들이 더 많은 방송토론회를 원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한 번의 방송토론회가 충분하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 전체적으로 약 37%의 응답자들이 한 번의 토론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더 많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제시한 적절한 토론 횟수를 보면, 3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사전조사 약 60%, 사후조사 약 5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범주는 2회로 사전조사 약 29%, 사후조사 25%이다.
- 사후조사에서 토론회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낀 시청자의 비율은 약 41%였다. 같은 조사에서 약 32.6%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5.3%이었으며, 62.2%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어떤 시청자들이 더 긴 방송토론회 시간을 원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승자와 차순위자의 득표율격차가 큰 지역구의 유권자들일수록 방송토론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선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후보자토론회 진행 방식

-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선호와 관련해서 보면, 약 41%의 유권자들이 유권자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29.5%)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형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자나 전문가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은 약 14-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 참여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6%가 유권자의 후보자토론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유권자 참여 방식에 관한 선호는 ‘후보자토론회 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수집

한 후 선별하여 이를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방식'(35.0%)과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32.3%)이 높은 편이다. SNS나 전화를 통한 질문에 대한 선호는 각각 18.5%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후보자토론회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인 형식은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후보자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44.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선호는 사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고 이후 후보자들 간의 상호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39.0%)이다. 주도권토론 방식(14.2%)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 분석 결과, 이번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약 94%가 후보자토론회를 관심을 가지고 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관심도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경우, 실제 투표 참여율도 높아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율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 자산 및 지지정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그룹 중에서는 30대, 40대, 50대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와 20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고졸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한 반면,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심은 보였으나 많은 관심이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약 12%p 정도 높았다.
-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0.9%). 이미 중앙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토론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뉴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2)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조사에서 과거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응답은 62.2%,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2.5%로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응답은 81.4%, 공정하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는 15.0%로 상당히 감소했다.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유권자들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직업, 학력, 소득, 지지정당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 분석에 따르면 직업적으로는 경영/관리직,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자, 소득에서는 450~550만원 그룹에서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지지정당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경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지자에서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던 국민의당과 소수정당이었지만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했던 정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오히려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 한편, 회귀분석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평가는 기존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사람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승자지지는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승자를 지지했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자 검증과 선거정보의 유용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77명 중 507명(47.1%)이 '정책 및 공약'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소속정당' 235명(21.8%), '후보자의 능력' 12.0%, '도덕성'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잘 검증되는 영역은 '후보자의 자질'(50.0%), 그 다음으로 정책(27.1%)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검증된 영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7.1% 이르렀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향후 후보자토론회 준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가 대체로 정보획득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전조사에서 지난 국회의원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유용성 평가에서 9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반면,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정보획득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아졌다.
- 특히 사전조사와 비교해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응답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보를 후보자토론회가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응답자들은 정보전달자로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조금 낮게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후보자토론회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존재하지만,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는 매체라는 점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과 관심 시청이 유용성 평가 변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론을 더 많이 시청할수록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정보획득에 유용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온전하게 시청하면 할수록 유용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자산, 지지정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 분석에 따르면, 사전조사에서 응답자의 54.3%가 지금까지의 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약 42.7% 정도는 흥미롭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60.8%가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했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 이후 흥미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로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37.7%)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후보자토론회의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과 지지정당 변수만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흥미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인식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통계분석결과 유의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직업, 지지정당이라는 세 가지 변수만이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의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로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뒤를 이었고, 민주평화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3. 효과적 측면

1) 심리·인지적 효과

-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선거관심 빈도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후 선거에 대한 긍정적 관심(“매우 많다”+ “어느 정도 있다”)이 토론회 전 96.6%에서 97.3%로 0.7%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매우 많다”라는 응답만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토론회 전보다 26%나 높은 57.9%를 기록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시청자들이 직접 평가한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통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제고 정도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약 68%로,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난 2017년 대선(75%)때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2018년 서울시장선거(65%), 경기도지사선거(63%)때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후보 정책공약인지에 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시청자 집단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4.6%로 미시청자 집단보다 13% 더 높았다. 이것은 2017년 대선(89%),

2018년 서울시장선거(90%), 경기지사선거(91%)때보다 높은 수치이다.

-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인지도 관련하여 시청자들의 72%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대선 때보다는 3% 낮은 수치이다.
- 선거쟁점 정보습득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의 75%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대선과 지선을 비교했을 때, 대선때 보다는 8% 낮지만 서울시장선거 및 경기지사선거 때보다는 각각 4%, 18% 높다. 국회의 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후보자의 전반적인 자질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간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였다(긍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83.1%, 82.9%, 77.5%). 특히 이 세 부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지난 대선 및 지선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t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선거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토론회 변수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후보자토론회 변수들(후보자토론회 자체에 관심,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 비교, 공약인지, 이슈인지, 선거정보 습득)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증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 연령(+), 학력(-)과 선거관심도 제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2) 태도 효과

-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주요 정당 후보들의 호감도의 차이를 비교한 t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후보자의 호감도는 다른 정치적 요인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사후조사의)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변수는 사전조사의 후보 호감도 변수였다. 기타 정치 관련 변수로 정당지지(민주당지지, 통합당지지) 변수들이 대체로 기대하는 방향대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호감도를 설명하였다. 후보자토론회 변수들의

과, 시청자의 64%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하였다. 이 수치는 과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68%)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낮지만 2018년 서울시장선거(62%), 경기지사선거(61%)때보다는 높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지지후보의 지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대체로 강화효과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지지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상승하거나(40%), 지지후보에 대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38%)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78%).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지지후보가 변경되었거나(11.3%), 지지후보가 새로 생겼다(10.8%)는 비율은 모두 합쳐 22%에 불과하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변수의 영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 간 자질 비교 변수만 후보지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주요 정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후보지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기타 통제변수 중 연령(+), 소득(+), 보수(+)¹는 통합당 후보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

VI. 기존의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

- 이 장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와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부재로 기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1. 제도적 측면

- 이번 선거의 설문조사 자료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이루어진 국민모니터링 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와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이에 평가에 있어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선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토론회 진행시간이 증가할수록 토론회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토론회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필요할

듯하다.

- 지난 선거방송토론회가 약 100분정도 지속된 것에 비해 이번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지역 구 평균 토론 시간은 대략 74분 정도였다. 또한 방송시간을 줄이자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약 5%에 불과했다. 반면, 토론회 횟수를 늘이자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약 41%로 높은 편이다. 지난 선거에서 횟수에 대한 의견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시청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후보자들 간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선호와 사회자 역할은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2.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 측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이 이전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긴 했으나 응답자의 94.2%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했고, 응답자의 81.4%는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으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이후 공정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60.8%), 이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고 하겠다.
- 전반적으로 최근 네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유용성, 공정성, 흥미성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효과적 측면

1) 심리·인지적 효과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시청 집단은 미시청 집단보다 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을 평균 0.33개를 더 인지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 집단은 새로운 이슈와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더 잘 인지하였다.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시청자 집단은 미시청자 집단보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응답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후보간 자질 비교도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 집단과 미시청 집단의 정치효능감 차이의 t검정 조사에서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이에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t검정결과, 두 집단 사이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태도 효과

-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의 이미지 형성, 인물됨, 정당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반면,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후보에 대한 호감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결과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조사결과를 지지한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주요 정당의 후보자 호감도를 조사한 t검정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 참여 효과

-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투표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자 집단 사이에 투표의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본 연구의 결과,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의 결과를 지지한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사는 강화되었다. 그리고 투표참여의 차이가 시청자 집단과 미시청 집단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 집단에서 더 높은 투표참여의 경향을 보였다.

4) 선택 효과

- 2008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에서 후보자토론회의 강화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후보자토론회 시청 결과, 지지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2016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조사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제한적인 설득효과가 발견되었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는 지지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대신 상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강화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은 지지후보를 변경하기보다는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Ⅷ.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 인터뷰 대상과 질문 내용

- 유권자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신뢰성과 적실성을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10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정치학 전공자와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인터뷰 내용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의 범위인 제도, 현실, 효과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정책적 함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2. 인터뷰 결과 분석

- (필요성/유용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여전히 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토론회에 대한 낮은 집중도와 시청률 하락, 정당선호에 따른 후보자 평가 등으로 후보자토론회가 정책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경직된 토론회 조직과 운용,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제작 및 편성 회피 등 후보자토론회의 문제를 함께 지적하였다.

- (만족도) 일부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과거에 비해 여러모로 개선되어 만족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시청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구성과 진행방식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 (효과성) 다수 응답자들이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후보자토론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면서, 특히 정치 신인들과 적극적 정치 관여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반면, 후보자토론회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 제한된 시간의 형식적 토론회를 통해 폭넓고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의견, 유권자 참여 없이 일방적 정보 전달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가 힘들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
- (잘 검증된 영역)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이 후보자토론회에서 가장 잘 검증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재원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정책이나 의원으로서의 능력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토론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언변, 화술, 토론주도력, 전략, 논제 및 쟁점 파악 능력, 통찰력, 후보자의 철학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토론회 횟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한 차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차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 차례 토론회로는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알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횟수의 증가와 함께 토론회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이 제안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적절한 횟수는 2~3회이다.
- (진행시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토론 시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유권자들의 관심 수준을 고려하여 토론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너무 길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회 시간을 늘리되, 토론회가 시청자 참여를 비롯한 역동적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진행방식)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이 현재의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에 특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점,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정태적인 형식이라는 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족한 형식이라는 점, 질문의 도출과정에서부터 질문이 역동적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지역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 (주도권토론)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도권토론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주도권토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선방안은 ‘사회자의 역할 강화’이다. 주도권토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사회자가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장감/흥미/유용한 토론 진행방식)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권자의 참여가 없는 현재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 참여를 통해 현장감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유토론 방식의 활용, 주도권토론 방식의 개선, 토론회를 복수로 개최하고 이념적 시각이 다른 사회자가 번갈아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후보자들이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패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탠딩토론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다매체 환경에서 토론회 형식과 내용 및 편성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매체 전문가와 편성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사회자 역할) 일부 전문가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이렇게 최소화된 후보자의 역할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보인 사회자의 역할이 부족했으며 토론회의 역동성과 질 제고를 위해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사회자의 능력과 자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회자 풀을 구성하거나 사회자 선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유권자 참여)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대부분 유권자들이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질의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유권자들이 질문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SNS나 SNS 영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토론회 중에 후보자와 유권자 간 또 유권자와 유권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 인터뷰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응답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후보자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운영 개선과 제도적 보완,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새로운 후보자토론회 형식의 개발, 사회자의 역량 강화, 홍보 강화, 쟁점 이슈

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의 채택, 유권자의 참여 확대, 시민의제와 논쟁적 의제 선정, 후보자토론회 방송의 황금시간대 편성과 공중파를 통한 방송, 토론회 횟수의 증대 등을 핵심적인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VIII.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 이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등을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정성에 있어서는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에 긍정평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본 연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선거쟁점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한 유용성에 대해 시청 후(사후조사)에 시청 전(사전조사)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비교할 때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편,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 후보자 공약과 선거 이슈에 대한 인지, 선거쟁점에 관한 정보 획득, 후보 간 자질, 정책공약 및 정책수행 능력의 비교를 위해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라는 유용성을, 후보자에게는 호감도 형성이라는 혜택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다른 한편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는 매우 유용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적극적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1) 후보자토론회 횟수와 방영시간대 및 방송채널

-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일차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 방식이나 정책별, 쟁점별 토론회 방식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경우, 방송 매체가 다양화된 만큼 후보자토론회가 반드시 TV를 통해서만 방송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역 방송사 및 주요단체 등이 함께 토론회 횟수의 증가 등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방송시간대와 방송채널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광고시간만을 고려한 방송사의 정책은 후보자토론회의 시청을 제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벗어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의 필요 측면에서 후보자토론회 방송 편성을 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황금시간대를 할애하여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토론회 형식 및 진행방식

-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제안되는 후보자토론회 형식은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이다. 유권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현재와 같은 토론회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현장감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에서는 사회자의 역할과 참여 유권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회자 선택과 토론 참여 패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유권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질문의 발굴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유권자의 참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며 동시에 주도권토론과 같이 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토론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도권토론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토론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SNS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진행 방식 또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과 같은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매체 간 통합적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유권자 간 소통과 유권자들의 실시간 평가 및 참여 등 매체 통합적 토론회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 경우에도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토론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회자의 토론 개입 정도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 집단은 사회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실상 유권자 참여형 토론이나 자유토론 방식을 활용하고 주도권토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자의 역할과 선출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3) 변화된 환경에 따른 후보자토론회 개선 방안

- 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후보자토론회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권자들이 단순 관객이나 질문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넘어 기획 단계 또는 질문 및 의제 설정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 형식과 진행방식, 시간 등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사항이다.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한 가운데, 지역 주민이 진행방식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가장 흥미롭고 유용한 방식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흥미 있는 후보자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와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는 플랫폼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토론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4)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타 제안

- 화면의 구성에서부터 변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미디어와 컬러풀하고 역동적인 영상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유권자들이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와 후보자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앉아서 진행하는 현재의 후보자토론회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기는 힘들다.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화면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주목하여 시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가 발언을 할 때마다 후보자의 약력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다양한 표과 그래프를 활용하여 화면에 제공하는 것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 후보자의 공약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언 중인 후보자의 QR코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현재 후보자토론회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토론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화면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방송국 스튜디오를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보다 역동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은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 실시 전부터 토론회 과정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지역 언론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 후보자토론회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질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다.
- 후보자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SNS 등을 통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후보자토론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 요약문 -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